원주 법천사지탑 등 문화재 보존 현장 공개

문화재청, 6월 14~16일

문화재 보존 · 수리 현장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동식)는 올해 1차 '生生 보존처리 Day'를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개최한다.

보존 처리 현장이 공개되는 문화재는 지난해 3월 전면 해체 후 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 중인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비롯해 보물 제597호 토기 융기문 발, 등록문화재 제607호 서재필 진료가운 등이다. 문화재 조사와 복원과정에 활용되는 CT(컴퓨터단층촬영), 적외선 조사 등 보존처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체험 신청은 오는 6월 9일까지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누리집(www.conservati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conservation@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1일 50명씩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042)860-9379 신성민 기자

건칠불 佛頭서 고려 은니사경 발견

불교문화재硏, 실상사 건칠불상 3D-CT통해 확인

남원 실상사 건칠불상 조사과정서 은(銀)으로 사경된 고려시대 대반야경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 발견은 비파괴 기법인 3D-CT 촬영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문화재 조사 방법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조계종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는 "실상사 극락전 건칠불좌상과 보광전 건칠보살입상의 제작기법과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D-CT 촬영을 실시했으며, 불상 머리 안에서 뽕나무로 만든 종이에 은가루로 사경한 고려시대 〈상지은니대반야바라밀다경(桑紙銀泥大般若波羅密多經)〉을 발견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포항 성모병원의 협조로 지난해 남원 실상사 건칠불상과 건칠보살상에 대해 3D-CT촬영을 실시했다. 조사 도중 건칠불상의 머리 안에서 고려시대에 조성된 〈대반야바라밀다경〉 1첩을 발견했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X-선 조사를 통해 머리 복장물을 확인했지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어 의문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 3D-CT 촬영을 통해 접힌 책에 금속성 물질로 쓴 글자들이 겹쳐 있는 것이 관찰되어, 금니 또는 은니로 쓰인 경전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결국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실상사는 접

3D-CT 촬영 국내선 첫 시도
불두서 은니대반야경 발견해
이장제와 妻, 시주자로 기록

절첩형 대반야경 국내 4점뿐
국가지정문화재 가치 충분해

힌 채 오랜 기간 불상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염려돼 유물 수습을 진행했다.

실상사 건칠불상의 불복장에서 수습된 사경은 상지에 은니로 쓴 〈상지은니대반야바라밀다경〉이며, 전체 600권 중


남원 실상사 극락전 건칠불좌상(사진 왼쪽)에 대한 3D-CT 촬영을 진행한 결과 불상의 머리에서 고려시대 은니 대반야경이 발견됐다.(사진 오른쪽)

권제396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 경전의 권말제 다음에는 이장계(李長桂)와 그의 처 이씨(李氏)가 선친의 명복과 집안의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시주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 시기가 고려시대 사경임이 밝혀졌다.

상지에 〈대반야경〉을 은니로 사경해 절첩장 형태로 장황한 경전은 현재 국내에는 4점만 남아 있어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이중 실상사 사경과 가장 유사한 것은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에서 수습한 3첩으로 현재 보물(959호)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사경을 감정한 송일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가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이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비파괴 기법을 활용한 문화재 조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03년부터 문화재에 대한 비파괴 광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원 실상사의 건칠불상과 건칠보살상에 대한 3D-CT촬영은 국내서는 처음 시도된 사례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개금으로 변형되어진 불상을 표면의 개금층을 제거하지 않고, 비파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이용해 원형을 찾아내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실제 조사 결과, 금박층 아래에서 제작 당시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상이 동일한 양식으로 조성된 삼존불상임이 추가로 밝혀졌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제작기법과 보존방안을 연구할 때 표면의 정보만으로 적절한 해답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의료계에서 사용하던 3D-CT를 문화재 조사에 활용했다"면서 "3D-CT는 수리 또는 복원 작업 이전에 문화재의 원형과 보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범위나 복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실상사 건칠불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 박물관 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송은석)은 5월 20일 경주 분황사,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일원에서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인 '문화재 다솜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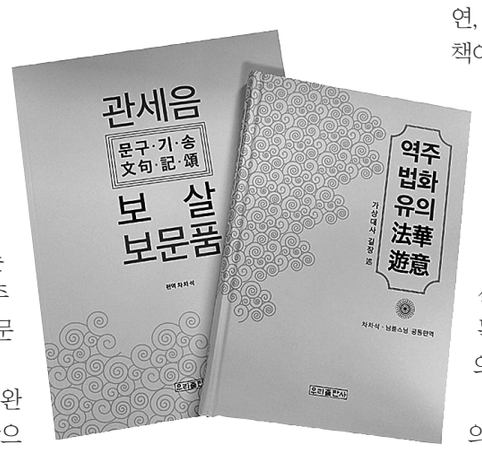
문화재 다솜(고유어: 애틋한 사랑) 활동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재 정화 활동을 하는 재능 나눔 봉사 활동으로, 봉사 신청을 한 경주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함께 문화재 주변을 돌보며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 다솜활동은 경주여고, 선덕여고, 경주고, 신라고, 경주공업고등학교, 경주여중, 문화중, 경주 관내 학생들과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국사학과,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경영학부, 국어국문학과, 불교학부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적에 대한 교육과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으로 진행됐다.

송은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은 "신라의 고대 사찰, 남산의 유적, 경주의 유교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즐겁고 보람찬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법화 · 관음신앙, 올바른 이해 정착되길"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법화요의 등 주석서 편역



법화 · 관음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고전 주석서가 편역 · 출간됐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법화 · 관음 신앙의 요지를 담은 〈역주 법화유의〉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문구 · 기 · 송〉을 발간했다.

〈역주법화유의〉는 중국 삼론학의 완성자인 길장(549~623))의 만년 저작으로, 그가 사상적으로 가장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저술됐다. 길장의 〈법화유의〉가 역주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책은 1장 개관 부분인 '법화유의의 성립과 전개 배경' 소논문이 함께 게재해 주석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소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에서 수학한 남륜스님이 썼다.

차 교수는 " 길장의 법화사상은 천태지의 스님에게도 영향을 줬다"며 "법화경에 대한 길장의 시각은 물론 천태학설과의 유관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화유의〉가 한국 불교계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특히 한국의 법화계열 교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간구한다"며 "법화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교단 또한 발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품고 밝고 희망찬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차 교수가 함께 내놓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문구 · 기 · 송〉은 천태학의 종조인 천태 지의와 그를 계승한 형계 담연, 자운 준식 등의 주석을 모아 놓은 책이다.

관음신앙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졌다. 관음신앙은 대승불교의 보살신앙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폭넓게 유포된 대중적인 신앙이다. 〈법화경〉 제25품인 '관세음보살보문품'이 〈관음경〉이라 불리며, 독립된 경전의 위상을 갖고 관음신앙의 토대가 되어온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자운 준식이 고려 의통 보운의 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불교와도 인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역주 주석서는 관음보살이란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 분의 각기 다른 견해를 보기 좋게 묶었다는 점에서 관음신앙의 총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차 교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문구 · 기 · 송〉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대상으로서의 관음보살을 철학적, 수행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불자들이 관음신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성 용주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19일 공고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던 사찰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화성 용주사는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의 묘소인 융릉(隆陵)로 쓰였던 곳으로, 제사 물자를 준비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 역할을 했다.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5일 상량, 9월 29일에 불상이 봉안되었는데, 왕실이 공사를 발주하고 관청이 재원을 조달하는 등 건립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일관되게 국가가 주도한 관영공사였다.

용주사는 중심영역인 삼문, 천보루(天保樓), 대웅보전을 가운데 일렬로 두고, 승당과 선당, 좌우 익랑(翼廊)은 똑같은 규모의 동일한 형태로 마주 보고 대칭되게 배치했다. 이 같은 배치와 공간구성은 창건 당시 모습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어, 조선 후기 능침사찰의 배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웅보전은 용주사의 주불전으로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는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화성 용주사 대웅전의 모습.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5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